



회관부지매입위원회 구성 결정 치협 정기이사회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치협이 치과의사회관 옆 4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또 고(故) 윤흥렬 고문의 뜻을 기리기 위한 흉상을 제작할 계획도 수립됐다.

치협은 7월 15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치과의사회관 옆 400여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회관부지매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수구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석천 총무이사 등 관련 이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부지매입은 일선 회원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차후 전국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미국치과의사협회나 일본치과의사협회를 방문, 그들의 회관 건물을 보면서 한국 치과계의 수장으로서 큰 부러움이 밀려왔다"면서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치과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이사회는 최근 작고한 윤흥렬 고문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치과계에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해 흉상을 제작키로 결정했다.

유석천 총무이사는 "고 윤흥렬 고문은 한국 치과계를 세계만방에 빛낸 인물일 뿐 아니라 장차 치과계를 이끌어 갈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며 "흉상을 제작, 치협 방문자들로 하여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윤리위원회, 의료사고보상심사위원회, 치과 의사전문의회행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을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공직기관 해당여부 결정의 건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회칙 개정의 건(경북, 강원지부 및 대한소아치과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치협-오랄비 구강건강캠페인 업무 약정 체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치의신보 운영규정 및 세칙 개정의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기타 토의안건으로 에너지절약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의 건 등이 논의됐다.

또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펼쳐질 치과계 그랜드워크숍과 관련,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치과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FDI 총회 유치 준비 논의 치협 국제위원회 첫 회의

치협 국제위원회가 첫 회의를 7월 1일 치협 회관 1층에서 개최했다.

치협 국제위원회(위원장 한중석·이하 위원회)가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유치 등 산적한 국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위원회는 치협 회관 1층에서 김재한 부회장, 한중석 국제이사, 박선욱 간사를 비롯한 국제위원회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집행부 들어 첫 회의를 개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은 위촉장을 전달받고 2013년 FDI 총회 서울유치 준비의 건, 아시아태평

양치과의사연맹(APDF) 관련 향후 협회 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2013년 FDI 총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함께 유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국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는 한편 이미 제출한 제안서를 세밀하게 다듬어 9월 말 스톡홀름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김재한 부회장은 6월 24, 25일 양일간 이수구 협회장과 함께 일본 치협을 방문한 내용을 전달하며 특히 "FDI 총회 유치에는 지역안배, 적정시설 존재 여부, 참석 가능한 치과 의사 수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국민 계도운동 앞장

에너지절약·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치협이 '에너지 절약 및 기초질서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 (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한다.

치협은 7월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먼저 국민 의식 선진화가 뒤따라야만 가능하다고 판단, 국민 계도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문화일보, 간호협회 및 치과계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 선진화 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며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하는 방안이 사실상 마련됐고 공식 조인식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의 이번 캠페인은 ▲고유가시대 치과병원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홍보하고 ▲길거리에 담배꽂초·침 안 뱉기, 교통질서 지키기, 지하철 무료승차권 신원 확인 운동을 민간차원의 대국민운동으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치협은 앞으로 문화일보와의 조인식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캠페인 취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동참의사를 밝혀온 간호협

회는 물론 치위생사, 치기공사, 치재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함께하는 방안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캠페인이 본격 시행되면 동참을 호소하는 스티커를 대량 제작, 전국 치과병의원과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에 배포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 협회장은 "과거 처음 안전벨트 미 부착 단속 때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벨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허전한 것과 같이 국민의식이 변화 했다"면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꽂초나 오물을 투척하고 침을 뱉는 기초질서 무시 행위부터 고쳐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 선진화 없이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 엘리트그룹인 치과의사들이 이 같은 국민 계도운동에 앞장서는 것이 치과의사 위상제고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



신임 이사장에 이수구 협회장 선출

치평원 이사회

이수구 협회장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또 서울대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강릉치대가 올해 처음으로 예비평가를 받는다.

치평원은 7월 3일 소피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수구 협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치평원 주관 하에 실시되는 예비평가의 대상으로 서울대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강릉치대가 선정돼 본평가 전에 시범적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

아울러 치평원은 오는 10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기타 토의안건으로 치의학 교육의 학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에게 치과계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기도 했다.

이수구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장, 병원장 등 치의학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했다"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와 치과대학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치과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